**37과 섬길 자를 택하라(우호철목사님)**

구원해주시고 주님의 일에 저희들 불러 사용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사로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앞에 맡은바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까지 주님앞에 온전히 교사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 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더욱 주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주님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교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동안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 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에게 나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지체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주님 함께 하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ios padre) Nos salvaste y llamaste a nosotros para utilizar en tu obra, te damos muchas gracias y alabanzas

Dios padre, Nosotros que recibimos tu llamada como profesores, Ayúdanos para que entendamos la importancia del encargo delante de Dios.

Además oramos ardientemente para que vivamos como profesor fiel y como cristiano fiel ante tí hasta que venga el Señor

Nosotros Somos tan débiles y nos falta mucho así que confiamos más en tu palabra.

Ayúdanos para que no seamos perezosos en tu obra por nuestra debilidad y estupidez.

Y te rogamos que ayudes a nosotros para instruir bien a los estudiantes como el hombre de Dios con la palabra del Señor

Hoy por la mañana, los profesores están reuniendo en este lugar.

Y Empezamos el día con la palabra del Señor

Ayúdanos para que vivamos todo el día con la gracia y las alabanzas ofrecidas(?) para el Señor

Y apóyanos para vivir como el miembro precioso que pueda llevar la gracia de Dios a todas las almas que vienen delante de nosotros.

Esta hora también solamente la confiamos en ti.

Acompáñanos y ayúdanos para que entendamos claramente la palabra y la voluntad de Dios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 전만 해도 더웠었는데요. 아침에 보닌깐 상당히 쌀쌀 하더라고요.

복장부터가 조금 달라지신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24장을 찾겠습니다.//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 부터 15절 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 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 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말씀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설교 였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En el nombre de Jesús que nos ama, hemos orado con la gracia. Amen.

Buenos días./

Hace pocos días, hacía calor, pero por la mañana estaba un poco frío

(Desde)Sus vestidos también son diferentes

Hoy, A la hora de estudiar el mandato de Josué. Verdad?

Vamos a buscar Jos 24. JOS 24

Jos 24. Desde 14 hasta 15. Leamos juntos

Jos 24:14 Ahora, pues, temed a Jehová, y servidle con integridad y en verdad;

y quitad de entre vosotros los dioses a los cuales sirvieron vuestros padres al otro lado del río, y en Egipto; y servid a Jehová.

Jos 24:15 Y si mal os parece servir a Jehová,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si a los dioses a quienes sirvieron vuestros padres, cuando estuvieron al otro lado del río, o a los dioses de los amorreos en cuya tierra habitáis; pero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Sabemos bien que ese fue el último sermón de Josué.

También el fondo de esta palabra.

Pero hace falta arreglar un poco más

¿Por qué predicó así en su último sermón?

Después de referir eso, está escrito que Dios llamó a Josué a la edad de 110 años. (Él falleció a esa edad)

이 말씀을 하게된 배경/ 그리고 왜 이런 각오를..자신의 각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필역을 하게됬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명령으로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각오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을 목전에 둔 이 여호수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장2-13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운데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설명하시면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외에 다른것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어떤 종교를, 하나의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그쵸?

어떤 종교적인 억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El trasfondo de esta palabra y Por qué él declaró su decisión delante de los israelitas.

Y como último mandato,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Por qué declaró su decisión así, vamos a pensar en eso.

Este Josué, quien estaba en el último momento de su vida, a los israelitas.... Si miramos desde 24: 2-13

Cómo había comenzado el pueblo de Israel con Abraham, Pasaron por Egipto y por el Canaán,

Está explicando de nuevo la gracia que Dios dio y mostró a ellos.

Además, explicando que entre las gracias ofrecidas por Dios al pueblo de Israel en realidad,

¿Hasta ahora, Cómo vosotros habéis vivido?

Comentando eso, ya dejad y abandonad servir a otros ídolos, fuera de Dios.

Y Solamente servid a Dios. Así está impulsando para que los israelitas tomen la decisión.

Eso no está obligando a tener una religión, ni una fe ciega al pueblo de Israel. Verdad?

No está reclamando audazmente a los israelitas para servir a Dios a fin de oprimir una religión.

Por medio de la historia de Israel,

Había su poder y su obra que mostró Dios a ellos todos los días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쵸?

14절의 말씀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 첫번째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실하다 하는 말은요

온전하다 그리고 순수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자기의 생각과 다른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진정/ 이 뜻에는 견고한, 확실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Y a través de este contexto, está destacando que ellos son el pueblo escogido por Dios que han de servir a Dios solamente.

Vamos a pensar un poco más versículo 14 .

Ahora, pues, temed a Jehová,

 y servidle con integridad y en verdad

Al temer y al servir a Dios, en primer lugar, los corazones del pueblo de Israel, tienen que servirle con integridad y en verdad. Así está declarando a ellos.

Ser hombre de integridad

Significa ser entero (Perfecto) y ser verdadero.

En cuanto a Servir a Dios, no con su propio pensamiento ni con su propio plan,

Solamente servir a Dios con el corazón puro y entero. Así está procurando al pueblo de Israel.

Y dijo que servidle en verdad.

Esa verdad. Es una palabra que tiene significado de ser firme y el certidumbre.

Está diciendo para servir a Dios con un corazón firme y sólido

어떤 유혹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숭배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금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요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밑에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며 /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확고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거예요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는 /중립은 없어요.

자 열왕기하 17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En cualquier tentación o en cualquier tribulación.

Para evitar la necedad que vuelva a la idolatría dejando a Dios, para desempeñarse de tal necedad (estupidez),

Y deseando Más para servir a Dios con la fe pura y firme, está hablando a ellos,

Es decir, hay que servirle con integridad y en verdad. Abajo.

y quitad de entre vosotros los dioses a los cuales sirvieron vuestros padres al otro lado del río, y en Egipto; y servid a Jehová.

A quién servid?

Solamente a Jehová.

Servid a Dios solamente

No a Dios también. Sino solamente servid a Dios. Dice.

Al pueblo de Israel,

pues, temed a Jehová,

 y servidle con integridad y en verdad

Y con un corazón sólido y firme servidle solamente a Dios.

Está Despertando(reclamando) la fe a los israelitas

En la fe, en servir a Dios,

No hay la neutralidad.

Vamos a buscar 2 Reyes capítulo 17.

2 Reyes capítulo 17.

2 Reyes capítulo 17:33

El aspecto de los israelitas fue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쵸? 지금 섞이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는냐?

하나님도, 바알도

그 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갈피를 잡지 못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겠느냐? 그쵸?

야고보서 1장에도요/ 두 마음을 품은것은 정함이 없다고 그런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

예 맞습니다.

다른 신들중에 하나님은 어떤 한 신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양쪽 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중립이 없어요.

2Re 17:33 Temían a Jehová, y honraban a sus dioses, según la costumbre de las naciones de donde habían sido trasladados.

Verdad? Ahora están mezclando

Y 1Reyes capítulo 18. Elías dijo al pueblo de Israel.

¿Hasta cuándo claudicaréis vosotros entre dos pensamientos?

Ni a Dios ni a Baal.

Al pueblo de Israel que vacilaba entre dos (Dios y Baal)

Dios reprochó a través de Elías.

¿Hasta cuándo claudicaréis vosotros entre dos pensamientos?

Verdad?

En Santiago cap 1. También dice que tener dos ánimo es inconstante y tal hombre que haga así\_

No piense, pues, que recibirá alguna cosa del Señor.

Uno entre 2?

Sí, cierto.

Dios no es quien existe como uno de los otros dioses

Además es imposible servir a ambos, a Dios y a los Ídolos. Ninguno puede servir así.

En Servir a Dios no hay neutral.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마태복음 6장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 /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는것 처럼, 하나님과 그 이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후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Buscamos San Mateo 6.

Mateo 6. Capítulo 6, versículo 24 leamos juntos.

Mat 6:24 Ninguno puede servir a dos señores; porque o aborrecerá al uno y amará al otro, o estimará al uno y menospreciará al otro. No podéis servir a Dios y a las riquezas.

Cierto, no pueden servir a Dios y a las riquezas al mismo tiempo

No hay nada que pueda reemplazar el lugar de Dios

Josué dijo claramente. Solo servid a Jehová.

Hacer la idolatría, y poner cualquier cosa que no sea Dios en el lugar de Dios.

Eso es el ídolo.

Como la luz y las tinieblas no se pueden mezclar,

no hay nada que pueda reemplazar en vez de Dios.

2Co 6. / Voy a leer desde versículo 14.

2Co 6:14 No os unáis en yugo desigual con los incrédulos; porque ¿qué compañerismo tiene la justicia con la injusticia? ¿Y qué comunión la luz con las tinieblas?
2Co 6:15 ¿Y qué concordia Cristo con Belial? ¿O qué parte el creyente con el incrédulo?

versículo 16, Leamos juntos

2Co 6:16 ¿Y qué acuerdo hay entre el templo de Dios y los ídolos? Porque vosotros sois el templo del Dios viviente, como Dios dijo:
Habitaré y andaré entre ellos,
Y seré su Dios, Y ellos serán mi pueblo.

예/ 하나님은요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한 신의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천지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쵸?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고

오늘날 너희 섬길자를 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 하시는데

성경에요,

 선택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 또한 선택한 본인 자신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또한 각 사람들의 몫으로 돌려 주시는데요

맨 처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할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죠? 자기 아내 하와의 말, 하나님의 말보다 //생명과 대신 선악과를 선택했던 아담의 선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Sí, Dios. No es solamente un dio que existe entre muchos otros dioses.

Es el único Dios, y verdadero Dios, que creó el cielo y la tierra y todas las cosas en el universo.

Está explicando eso claramente a los israelitas.

Solamente Servid a Dios

Y está hablando claro por qué tienen que servir a Dios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Así declaró al pueblo de Israel.

En la biblia - Hay muchos casos de que tenían escoger

Y podemos pensar que nuestra vida también actualmente es un suceso de las elecciones.

Todos los días y cada momento, estamos en la encrucijada de elegir

Y Dependiendo de la elección que haga, también tendrá que hacerse cargo del resultado.

 Dios no interviene directamente en el proceso de la elección. Y debido a su elección, también devuelve el resultado a cada persona.

Al principio, Adán delante de Dios, estaba en el punto de escoger.

En aquel momento, Adán no persiguió la palabra de Dios y ni a la voluntad de Dios.

Entre la palabra de su esposa, y de Dios.

La elección de Adán que eligió la fruta del bien y el mal en lugar de Dios. Sabemos bien \*su elección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에서부터 출발했던, 함께 갈대아 우를를 나왔던 조카 롯,

그 조카 롯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을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것이 아니죠? 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롯은 좇아 나왔던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 목자들의 말에 더 귀 기울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떠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롯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롯을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가고

결국 자기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 가운데 멸망 받을 때 심판 받을 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자신의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결국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만 좇아 왔습니다.

Y Lot que se marchó de Ur de los caldeos, con Abram.

El primo de Abram.

Ese Lot también cuando estaba parado en la encrucijada, no eligió seguir la palabra de Dios y ni la voluntad de Dios.

(Finalmente) cuando salieron de Ur de los caldeos, él no salió por seguir directamente la palabra de Dios.

Ya lo hemos aprendido antes.

Él salió siguiendo a Abram.

Es decir salió según el dicho de Dios que había escuchado a través de Abram.

Sin embargo, Aunque tenía que inclinarse su oído a la voz de Dios a través de Abram,

Lot se inclinó más a los dichos de sus pastores y se apartó de Abram.

Es decir eligió el camino de apartarse de Dios

Después la vida de Lot quien se apartó de Dios, se volvió cada vez más depravada,

Y en el fin, su esposa se convirtió en una estatua de sal en el juicio, cuando Sodoma y Gomorra fueron destruidas en el incendio.

Y Él se convirtió en el padre de Moab y los amorreos a través de sus hijas.

Ha resultado en una eternidad tan vergonzosa.

Al contrario, en el caso Abram

Abram continuó eligiendo a Dios solamente y siguiendo la palabra de Dios.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더욱 점점점점 더욱 온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또 그릇된 선택을 한 분이 또 나옵니다.

팥죽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으로 바꾼.. 누구죠??

에서

애써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

(이제 조금 웃으시네...)

에서의 선택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결과글 낳았어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걸 져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 가지고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오늘날 너희 섬길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어땠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건 분명합니다.그쵸?

이스라엘은요 /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던 민족입니다. 그쵸?

Por lo tanto, Podemos ver que cada vez más y más él se convierte en un antepasado completo en la fe.

Y en Génesis cap 25, sale alguien que hizo una elección incorrecta.

Cambió la primogenitura con el guisado de las lentejas.

¿Quién? Esaú.

Desobedeció a la palabra de Dios.

(Haciendo gran esfuerzo, Esaú....Ya se ríen poquito)

La elección de Esaú, finalmente trajo un resultado por quebrantar la palabra de Dios.

La primogenitura es la promesa de Dios y la bendición. Pero lo dejó.

Además el pueblo de Israel, el pueblo escogido por Dios

Hoy, Ahora estamos pensando concentrando el capítulo 24 de Josué

Después de escuchar el dicho de Josué como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Cómo estuvo el pueblo de Israel en aquel momento?

Sí, nosotros también lo haremos, solo a Dios serviremos. Pero si nos fijamos en la historia de Israel, está claro de que no lo hicieron.

Los Israelitas.

Son un pueblo que cambió a Dios por un becerro de oro mientras vivían en el desierto después del Exodo,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찾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 찌어다 심히 떨찌어다 두려워할찌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민족이 어느 민족이예요 이스라엘이예요

불과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마른땅처럼 건넜던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삶 가운데, 그들 민족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섞어지고 없어질 우상으로 바꿔서/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예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호언장담했죠? 그 선택의 결과가 2000년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Y por medio de este acontecimiento, Dios habló esa palabra

Buscamos Jeremías capítulo 2.

Jer 2:11, 12 leamos juntos.

Jer 2:11 ¿Acaso alguna nación ha cambiado sus dioses, aunque ellos no son dioses? Sin embargo, mi pueblo ha trocado su gloria por lo que no aprovecha.

Jer 2:12 Espantaos, cielos, sobre esto, y horrorizaos; desolaos en gran manera, dijo Jehová.

Aquí, la nación, Qué nación se refiere? Israel.

Sólo hace unos días, aquellos cruzaron el mar Rojo que se separó como la tierra seca, ellos....

Los que se quejaron contra Dios, con la misma boca con la que habían alabado a Dios

El pueblo de Israel, en sus vidas, en su historia.

No fue tan solo una o dos veces que convirtieron a Dios en ídolos para ser mezclado y desvanecido.

En el tiempo(la época) de Jesús, los israelitas escogieron a Barrabas en lugar de a Jesús.

El resultado fue.....Bueno!

Su sangre sea sobre nosotros, y sobre nuestros hijos.

Ellos dijeron fanfarronadas

Y como resultado de esa elección, Dios pagó al pueblo de Israel durante 2000 años según su palabra.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도 마찬가집니다.

선택이 이 선택이 얼마나 잘 못 된것인지는 후회를 했지만요.

하지만 이 유다는 또 한 번의 그릇된 길 잘못되어진 길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잘못 되어진 선택의 연속이였어요. 유다의 삶은.

 유다의 선택은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그랬단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영원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니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들 시간의 제악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가운데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 각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될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Judas quien vendió a Jesús por las 30 piezas de plata, también.

Él se arrepintió que esta elección fue incorrecta,

Pero ese Judas volvió elegir de nuevo un camino equivocado, la elección incorrecta.

Fue el suceso de elecciones equivocadas. La vida de Judas.

Es decir, la elección de Judas al principio no era así pero el aspecto final fue diferente

Hay muchos a nuestro alrededor.

Y él nos habla claramente a través de estas palabras.

La elección es inevitable para nosotros, los humanos.

Ahora, piénsalo

Dios que está en la eternidad, Dios todopoderoso.

Dios ha dado camino a las personas que tienen límite de tiempo y de espacio para que puedan entender cómo es la obra de Dios

Ahora en nuestra historia hay quienes continúan predicando la palabra de Dios.

No podemos escuchar la palabra de Dios directamente. No?

En nuestra época, podemos escuchar la palabra de Dios a través de la iglesia.

Además, por medio de cada uno de nosotros que escucha la palabra de Dios, por escucharla,

Nos damos cuenta de que estamos en la encrucijada de elegir en nuestras vidas

Entre seguir la palabra de Dios o vivir según nuestros deseos carnales. En todos momentos.

아까 아브라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토록 영광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겁니다.

그리고 롯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은 산 사람이 있습니다.

/룻 /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예요 그쵸?

근데 이 모압 여인이였던 이 룻.

이방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룻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메달려 있었던 한 강도의 선택, 또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좋은 일 착한일이라고는 해본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순간

누가복음 23장 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Acabo de explicarles sobre Abram.

Abram, finalmente eligió a Dios y él sigue estando en la gloria eterna como antecedente de la fe en Dios

Dios lo mostró como el ejemplo.

Y hay una persona que tuvo similar nombre Lot, pero llevó totalmente una vida totalmente diferente.

Rut. Esa Rut, era la moabita. Cierto?

Pero la moabita esa Rut,

Aun siendo extranjera, entró en la genealogía de Jesús. Así tiene un antecedente (currículum) especial.

Pero esta Rut pudo escalar la genealogía de Jesús como resultado de su elección.

Y la elección de malhechor que fue colgado a lado de Jesús. será buena lección para nosotros.

Él... en toda su vida, pudiera no haber hecho buenas cosas.

Sin embargo, al momento que estaba al lado de Jesús.

S.Lucas capitulo 23. Capitulo 23

Desde versículo 39, voy a leer. // 23:30

Luc 23:39 Y uno de los malhechores que estaban colgados/ le injuriaba, diciendo: Si tú eres el Cristo, sálvate a ti mismo y a nosotros.

Respondiendo el otro, le reprendió, diciendo: ¿Ni aun temes tú a Dios, estando en la misma condenación?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떼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의 선택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되는

우리 생활가운데도요 이런 선택의 순간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여호수아 24장 돌아가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 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는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오늘날 택하는데 그 앞서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너희들이 선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Nosotros, a la verdad, justamente padecemos, porque recibimos lo que merecieron nuestros hechos; mas éste ningún mal hizo.

Y dijo a Jesús: Acuérdate de mí cuando vengas en tu reino.

Leamos juntos versículo 43.

Luc 23:43 Entonces Jesús le dijo: De cierto te digo que hoy estarás conmigo en el paraíso.

La elección de este ladrón.

Por esta elección, obtuvo el descanso eterno que va a entrar al paraíso con Jesús.

Creo que hay estos momentos de la elección en nuestras vidas.

Josué está instando al pueblo de Israel.

Regresamos a Josué 24 de nuevo

Versículo 14.

Jos 24:14 Ahora, pues, temed a Jehová, y servidle con integridad y en verdad; y quitad de entre vosotros los dioses a los cuales sirvieron vuestros padres al otro lado del río, y en Egipto; y servid a Jehová.

Y si mal os parece servir a Jehová,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si a los dioses a quienes sirvieron vuestros padres, cuando estuvieron al otro lado del río,

o a los dioses de los amorreos en cuya tierra habitáis; pero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Sí, él exigió a ellos servir a Jehová

y después de esa palabra, escogeos vosotros mismo a quién sirváis.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이 섬기다의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노동하다 봉사하다 경배하다 라는 이 세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일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해야 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배하는 것도/ 섬기는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지, 분명히 이 말씀 이 단어 하나에도 그 내용이 함축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신앙의 중심이 /어렸을 적에는요

나이가 어렸을 적이 아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신앙의 중심이 나와 내 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점점 자라면서/ 신앙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점점점점 중심이 옮겨가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더욱 힘쓰고 항상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통 마음이 주님의 일에 가있는 사람들.

Servir a Dios, la palabra ¨SERVIR¨ significa que en el sentido original, trabajar, servir, adorar tiene tres significados juntos.

Hay algunas cosas de trabajar, y de hacer servicios también que ha de adorar.. todos están incluidos en servir.

Cómo debemos servir a Dios,

Pienso que obviamente esta palabra está implícita en una palabra

El Centro de nuestra fe es Dios.

Dios el Señor en vuestros corazones..

El Centro de nuestra fe es.. Cuando éramos niños.

No por la edad.

Sino cuando éramos niños en la fe después de recibir la salvación, el centro de la fe siempre estaba en mí y en mi atención- alrededor de mí.

Pero creciendo más y más la fe, el centro de la fe se mueve de mí a Dios.

Cada vez más. Poco a poco se cambia.

Entonces, al final, lo que el Señor quiere, lo que le agrada al Señor, en este trabajo siempre se fija el corazón totalmente allí

Verdad?

Las personas que trabajan la obra del Señor y

Las personas cuyos corazones están hacia la obra del Señor.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한가지 질문 좀 해볼께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도 이자리에 계시닌깐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여쭤볼께요. 아직 결혼 안하신 분들은 대답 못하실 테닌깐

결혼하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있는 것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닌척 하시는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회사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온통 마음은 이따 저녁에 만날 그 분 생각하고 있어.

웃으시는 분들있어요. 경험이 있는거예요.

아니면 이상한거예요 이거 당연한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사랑하면요 내 마음이 가있거든요.

그러면요 온통 생각도 거기 가 있어요.

힘들어도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여기저기 불려서 혼나고 다녔어요

그래도 어때요?

이따가 저녁에 만날 그 분 생각만 하면 힘이나

Ahora, la atmósfera es muy pesada, Voy a preguntar una cosa.

Aquí hay Algunos casados y algunos que están preparando para el matrimonio.. todos están aquí.

Pregunto solamente a los casados.

Aquellos que aún no están casados no podrán responder.

El esposo amado, y la esposa amada.

Si realmente le ama, es posible que se incline su corazón a la persona amada.

¿Están pretendiendo que no?

¿Por qué yo digo eso?

En la empresa trabaja./ pero todo su corazón(mente) está pensando en que se encuentra con él por la tarde.

ahora algunos que se ríen. Tienen esa experiencia.

Sino, es muy raro. Es una cosa muy natural.

No pretendan no hacerlo

Por qué? Si lo ama, el corazón está.

Pues todos los pensamientos también están allí.

Aún hoy cansado. El día de hoy, realmente estoy agotado, es difícil trabajar fue tan duro.

Mi jefe me llamó y reprendió.

Pero que tal?

Si piensa en él para reunirse más tarde, me da ánimo

저만 그랬나보네요 오늘 레포가 형성이 안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정말요 주님 일에 힘쓰고 있고 온통 마음이 거기 가있어요

그러면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일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

예 괜찮습니다. 주님 힘 주시거든요

나의 힘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온통 나의 사랑이 거기 가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요 정말 힘 있게/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일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도 그러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는 조금 맛 본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부보자식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자매간의 사랑 .

예조금 맛봤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나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면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Ah.. solo yo fuí así. Hoy no me reaccionan bien.

Gracias.

En realidad, se esfuerza mucho y todo su corazón está allí.

Pues/ debido al Señor,/ es pesado y cansado trabajar para el Señor.

está bien! /Porque el Señor me da fuerza.

El origen de mi poder es el Señor.

Todo mi amor está allí,/ verdad?

Esa persona, poderosamente, mientras las aflicciones valientemente puede esforzarse en la obra del Señor.

Sí David también.

oh Jehová, fortaleza mía. Te amo,

Él sigue confesando continuamente en Salmos.

Oh Jehová, fortaleza mía, te amo.

Sale así porque le amó

Si realmente sirve al Señor,

Ese amado corazón hemos experimentado un poco

El amor entre la pareja y entre padres e hijos

Y de los hermanos y las hermanas.

Sí hemos probado un poco

Si pudiera recibir la consolación y si me diera ánimo, a través de estas cosas.

Verdadero dueño de mi vida, Dios quien me creó, quien me da fuerza.

나의 구원의 증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힘은

주님일 하는데 넘치도록 더 해주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요 주님이,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이런말씀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선지자만 이랬겠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분들의 그 마음에 그 사랑은 /온통 주님께만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기신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님에 일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시대에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사야선지자 사람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사야선지자에게 맡기셨고

또 사도시대에 사도들에게 맡기신것처럼

또 우리시대에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el testigo de mi salvación y el Señor de mi vida, Dios. El poder de ese Dios,

Creo que añadirá más abundantemente al hacer el trabajo de Dios.

En la biblia,muchas veces habla del Señor como mi fortaleza, mi señor

Buscamos Isaías capítulo 12?

Isaías capítulo 12. Isaías capítulo 12:2 leamos juntos.

Isa 12:2 He aquí Dios es salvación mía; me aseguraré y no temeré; porque mi fortaleza y mi canción es JAH Jehová, quien ha sido salvación para mí.

Están escritas muchas palabras así.

Sólo por el profeta Isaías?

Los antepasados de la fe, los antecedentes de la fe.

En los corazones de todos aquellos que se mostraron en el ejemplo de antes,

su amor solo estaba hacia el Señor.

Y gracias a la fortaleza dada(al poder dado) por el Señor.

ellos fueron tan leales(fieles) en el trabajo que Dios les encargó, lo recordamos

Y ahora en nuestra época, nos encargó este ministerio.

En la época del profeta Isaías, Dios consignó el ministerio del Señor a Isaías.

Y en la época de los discípulos, encargó a los discípulos.

También en nuestra época nos encargó el ministerio del Señor.

주님만 섬겨야지 되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섬기는 것 /예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쵸?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런데 한가지 좀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15절에

Servir solamente al Señor, servirle

No es una opción de escoger.

Dios que es mi salvación,- el Señor de mi vida y el origen de mi vida. -Servirle es una cosa muy clara.

 Verdad?Hebreos cap 12.Desde Hebreos cap 12 : 1 voy a leer

Heb 12:1 Por tanto, nosotros también, teniendo en derredor nuestro tan grande nube de testigos, despojémonos de todo peso /y del pecado que nos asedia /y corramos con paciencia / la carrera que tenemos por delante,

Versículo 2,3 Leamos juntos.

Heb 12:2 puestos los ojos en Jesús, el autor y consumador de la fe,/ el cual por el gozo puesto delante de él/ sufrió la cruz, menospreciando el oprobio, / y se sentó a la diestra del trono de Dios.

Heb 12:3 Considerad a aquel que sufrió tal contradicción de pecadores / contra sí mismo, / para que vuestro ánimo no se canse hasta desmayar.

Solo mirando al Señor, sirven solamente al Señor

Los cristianos que nacieron de nuevo,

Las personas que entendieron- reconocieron el amor de Dios, han de tener obviamente ese corazón.

Pero hay una cosa en lo que debemos pensar más.

Al pueblo de Israel, Josué declaró claramente.

Veamos Josué cap 24 de nuevo.

Versículo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는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예요 그쵸?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실제요 여호수아 뒤에 있는 성경이 뭐죠?

예 사사기 1장 1절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스라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지금 누구에게 묻고있어요?

예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향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Jos 24:15 Y si mal os parece servir a Jehová,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si a los dioses a quienes sirvieron vuestros padres, cuando estuvieron al otro lado del río,

o a los dioses de los amorreos en cuya tierra habitáis; pero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Leamos juntos 16 la respuesta de ellos

Jos 24:16 Entonces el pueblo respondió y dijo: Nunca tal acontezca, que dejemos a Jehová para servir a otros dioses;

Sí, las personas que habían dicho que serviremos solamente a Dios. Nunca tal acontezca que sirvamos a otros dioses.

Estas personas fueron los israelitas. Verdad?

Pero ellos, después de esto, ¿Cómo cambiaron ellos?

En la actualidad, ¿Cuál libro está detrás de Josué?

Sí Jueces. Cap1:1

Sus corazones, el corazón del Israel fue así.

Versículo 1

Jue 1:1 Aconteció después de la muerte de Josué, que los hijos de Israel consultaron a Jehová, diciendo: ¿Quién de nosotros subirá primero a pelear contra los cananeos?

¿A quién están preguntando? Sí a Jehová

Están preguntando a Dios, verdad?

Podemos ver que Después de la muerte de Josué, el aspecto de los hijos de Israel estaban hacia a Jehová.

~ se dirigieron a Jehová.

이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으련만

여호수아 뒤에 사사시대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사기 맨 마지막장 맨 마지막절

사사기는요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21장 25절 같이 읽겟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중심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자기로 돌아가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던 중심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예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오직 주만 섬기는 것

이것은 하루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분명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여호수아때만 있었던것이 아니고요

모세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Si pudiera continuar eso, sería Bueno.

Después de Josué, pasando en la época del juez.

En el último capítulo/ y versículo de Jueces

En el libro de Jueces es totalmente diferente el principio y el fin.

Leamos juntos 21:25

Jue 21:25

Jue 21:25 En estos días no había rey en Israel; cada uno hacía lo que bien le parecía.

¿ A dónde se fue el centro del corazón?

Volvió a sí mismo de nuevo. El corazón que estaba hacia Dios regresó a sí mismo nuevamente.

Sí, servir a Dios, servir solamente a Dios

Esto no es solo un día.

Es algo que debe ser sostenido.(Debe ser sostenido-continuamente)

nos da gran enseñanza a nosotros que debemos guardar.

Esto (este problema) no solo pasó en la época de Josué.

Esto también sucedió en el tiempo de Moisés.

Deutronomio 31, antes de morir Moisés, al predicar su última palabra (despedida) dijo algo similar.

Buscaremos. Deu 31:27

Deu 31:27 Porque yo conozco tu rebelión, y tu dura cerviz; he aquí que aun viviendo yo con vosotros hoy, sois rebeldes a Jehová; ¿cuánto más después que yo haya muerto?

뻔하다는거예요

함께해도 하나님 져버리고 니들 마음데로 우상을 섬기는데 나 없으면 어찌하겠는냐?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보고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세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요, 실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각오했어요

몇일이나 가요?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각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 각오 잘했다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dijo que/significa) Obvio.

Aunque yo estaba juntos, sirvieron a otros dioses dejando a Dios según lo que quisieron. Más qué pasará cuando no estuviera yo.

Es verdad. Moisés previendo que el pueblo de Israel abandonaría (abandonaba) a Dios, está hablando a ellos nuevamente antes de su muerte.

Sí nuestros corazones, en realidad,

No la mente de otra persona (ajena), sino mi mente.

Cambia a cada momento. Verdad?

Guardar el corazón.

He decidido servir a Dios realmente.

Pero ¿Cuántos días mantiene?

Pienso que deberíamos esforzarnos a mantener – guardar nuestros corazones.

Es digno de ser servidor de Dios

Y esto debe ser nuestra oración y decisión de todos los días.

Josué,

después de que los israelitas respondieron que serviremos solo a Dios de esa manera..

\*\* 끝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Pues Josué no terminó decir a ellos como

están bien sus decisiones.

여호수아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부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여호수아가 촉구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권했던 그 말씀들을 그 당시에는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오랜 세월 지나면서 결국 그 마음이 점점 점점 변해갔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께로 향했던 자기의 마음을 지켰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점점점점 변해갔습니다

사사기시대 35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ÇÇ

선생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하나님앞에 잘 살고자 이자리에 와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만 잘살아 보겠다고 이 자리에 와 계신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Vamos a Volver Josué. capitol 24.

De vesículo 19

Jos 24:19 Entonces Josué dijo al pueblo: No podréis servir a Jehová, porque él es Dios santo, // y Dios celoso; //no sufrirá vuestras rebeliones y vuestros pecados.

20 : Si dejareis a Jehová y sirviereis a dioses ajenos,

él se volverá y os hará mal, y os consumirá, después que os ha hecho bien.

El pueblo de Israel...

Por fin, las palabras que Josué instó (exigió)

trataban mantener (guardar) las palabras que Josué había obligado (exigido),

sin embargo, Finalmente después de un largo tiempo, el corazón (la mente) se cambió gradualmente.

Lo más importante es.. Las personas de aquel tiempo.

Con la palabra que Dios habló (dio) a través de solamente Josué.

pudieron guardar su corazón que estaba hacia a Dios

Pero las personas posteriores cambiaron poco a poco.

Pasando 350 años de la era de los jueces,

Sus corazones volvieron a sí mismo nuevamente.

Los profesores tiene esa responsabilidad, verdad?

Nosotros, no estamos en este puesto para vivir bien solamente nosotros antes de Dios.

Es decir todos ustedes (que están aquí) no han venido para que vivan bien para sí mismo.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또한 책임이 하나님이 더해준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사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을 온전히 더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빚을 졌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지금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찾겠습니다

Nosotros tenemos a cargo las almas de los estudiantes que Dios nos dio.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Vivir con firmeza (mentalización- decisión)

creo que no termine con eso (decisión)

También tenemos las responsabilidades agregadas por Dios

Tenemos la responsabilidad de levantar-Instruir a las almas de los estudiantes que nos ha sido encargado como el hombre de Dios.

Para continuar la obra del evangelio hasta que venga el Señor en la próxima generación,

Para hacer la obra de Dios y cumplir su voluntad a través de iglesia continuamente,

Nosotros los profesores somos quienes se preparan para eso.

Los que preparan la próxima generación

Los que se preparan para la obra de Dios.

Creo que eso es lo que el Señor nos ha encargado.

Sí, si quiere servir al Señor,

tiene que sacrificarse sin duda. (Obviamente)

Tenemos la deuda de tal amor

Y ahora estamos haciendo todo lo posible para pagar la deuda de su amor.

Buscamos Hebreos capítulo 9.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자기의 꾀를 좇으며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예요

반대로 복있는 자의 길은 어떠한지 아시죠?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할 일,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써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eb 9:14 ¿cuánto más la sangre de Cristo, el cual mediante el Espíritu eterno se ofreció a sí mismo sin mancha a Dios,

limpiará vuestras conciencias de obras muertas para que sirváis al Dios vivo?

Sí, cuando medito la gracia y el amor que Dios me ha dado, podremos saber claramente cómo debo servir a Dios. (esa palabra)

A través de Jesús Cristo, podrá plenamente al Señor.

El malo anduvo en su consejo, por eso estuvo en camino de pecadores.

Y al fin estuvo en silla de escarnecedores se ha sentado.

Ese es el camino de los malos(los impíos)

Por el contrario, ¿Saben el camino de los bienaventurados?

Bienaventurado el varón que no anduvo en consejo de malos, Ni estuvo en camino de pecadores,

Ni en silla de escarnecedores se ha sentado.

Esto es el camino de los justos, Es el camino del Bienaventurado el varón.

Lo que debemos hacer delante del Señor convenientemente.

en el lugar que debo estar, y (Vivir-Confiar)

en todo el poder de Dios que me salvó, confiar en esa palabra,

Será la postura (la actitud) básica para servir a Dios.

Y será lo que los cristianos deben hacer, como los profesores que enseñan la palabra de Dios a los estudiantes.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체하지 않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오늘날 섬길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요 더 생각해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였습니다.

신앙의 간증

예,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앞에/

 이 본을 보이는 사람들로써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 교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이 해야할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불러 사용하여주심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습으로

저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Josué explica la gracia de Dios a la gente y exige su determinación.

Y habla sin demora., habla directamente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Esa fue la confesión de la fe de Josué que no hace falta pensar de más

El testimonio de la fe

Sí, nosotros también. Ante las almas de los estudiantes que nos encargó

Como el patrón,

Creo que los aspectos que debemos mostrar.

escogeos hoy a quién sirváis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Creo que son las palabras que nuestros maestros deben tener y que estar listos para hacer todos los días.

Quiero decir más. Pero el tiempo ya se acabó. Hasta aquí.

Oramos por un momento

Dios misericordioso.

Señor tú salvaste a nosotros tan débiles, además llamaste a nosotros para tu obra. Muchas gracias por utilizarnos.

Dios padre, a través de nuestros aspectos,

Te rogamos ardientemente para que nos protejas y ayudes a servir al Señor en todas nuestras circunstancias con todo el poder que nos ofreces.

저희에게 나아오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시간, 또한 능력 그리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 섬기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이 주님앞에 찬양과 감사드리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생활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저희생각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한 많은 일정 가운데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주님 이 교사들 부름받아 주님 일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맡겨주신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예수님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Las almas de los estudiantes.

Queremos hacer nuestro mejor esfuerzo para que podamos hacer crecer completamente como el hombre de Dios por la palabra de Dios

Ayúdanos para que seamos el ejemplo en servir al Señor enteramente con todo el tiempo, con toda habilidad, y entre todas las situaciones.

Y Para que todos los días permitidos – sean la alabanza y el agradecimiento,

Dirige- Gobierna en nuestra vida y dirige nuestros corazones y pensamientos.

El día de hoy también entre muchos trabajos, solamente te confiamos.

Trabaja más entre nuestros profesores que fueron llamados para tu obra,

También oramos ardientemente para darles más habilidades que puedan hacer lo mejor para tu obra

El día de hoy, Te damos muchas gracias Señor.

Y añádenos la sabiduría para que podamos vivir con agradecimiento y para que entendamos abundantemente las gracias del Señor en nuestra vida.

En el nombre del Señor Jesús que nos ama, hemos orado Amen.